

#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

## The Research on the Disposal of Unused Cloths

—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

공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 수 김 병 미

대학원생 이 재 명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Byeong Mee

Graduate Student: Lee, Jae Myo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ays of disposing unused cloths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o achieve its aim, previous researches are studied and simultaneously a survey has been done for housewives in Taejeon city.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zed by the SPSS progra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On the questions concerning planned clothes buying, meaningful differences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ir ages, degrees of education, occupations, patterns of housing. On the period wearing cloths, meaningful difference is shown only by the age.

The first reason for disposing of unused cloths is that the cloths become unfit for the body, second is that the designs or colors become so old that the consumer does not like it any more.

On the ways of currently disposing of unused cloths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on the ways of desirable disposal of unused cloths.

On the questions of recycling, the experience of wearing used cloths given by others is high. On the question of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given used cloths?', the commonest answer is 'I would wear them because it would be beneficial economically.', 'I wouldn't wear them.', 'I would wear them because it would be any help for resource frugality or pollution prevention'.

On the question of the experience of getting used cloths voluntarily, 38.1 percentage of pollees has answered yes, 62 percentage no.

## 1. 서론

과거에는 의복이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반영구적인 재물로 취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단기간 사용하고 마는 단순한 소비재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의복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입지 않고 死藏되는 의복의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복소비과정은 구입, 사용, 폐기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구입할 때에 아무리 만족스럽던 의복도 사용후기로 가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용빈도도 줄어들어 착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 결국은 폐기하게 마련이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은 의생활 관리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 장소, 비용의 낭비를 가져와서 가정생활 운용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증가는 한 가정, 또는 특정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용 가능한 많은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의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업폐기물,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특히 의복폐기와 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 가능성이 큰 의복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복의 폐기에 관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폐기문제를 환경오염문제와 관련지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처리,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행하고 있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과 처리실태, 폐기된 의복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인간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한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으로 소비생활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한 만족감 획득, 그리고 사용후의 처분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이 끝난 제품의 처분활동 역시 중요한 소비활동 과정이다.<sup>1)</sup>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물질 문화가 인간의 생활 양식, 행위, 태도, 가치관 등에 변화를 가져와 의생활 경향은 소비화, 유행화, 다양화, 합리화, 감각화, 기능화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띄어 가고 있다.<sup>1)</sup> 또한 합성섬유의 개발로 인한 의복재료의 풍부한 생산과 다양함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이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의복의 소비가 증가하고 착용하지 않는 의복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을 구입하여 사용한 다음 폐기처분할 때까지의 경로는 개인의 경제사정과 취미, 착용 습관에 따라 다르다. 의복을 착용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옷감이 약화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의복의 치수가 변하

거나 착용자의 체형이 변했을 때, 유행에 뒤떨어졌을 때, 싫증이 났을 때, 옷감의 질감이 나빠지거나 변색·착색되었을 때, 제거할 수 없는 汚點이나 구김살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요인이 나타났을 때, 만족스럽게 착용하던 의복을 폐기하거나 사장해 버리게 된다.<sup>1)</sup>

우선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유행이 지나거나, 지나친 구매행위, 싫증에 의해서가 대부분이었고, 손상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게 조사되었다.<sup>10)</sup> 그리고 성인은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심리적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녀는 주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많았다.<sup>7)</sup>

유연실<sup>9)</sup>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의복폐기원인은 '새로산 다른 옷이 있어서'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이 '유행이 지나서', '싫증이 나서' 순이었으며, '단추나 지퍼같은 부속품이 고장나서'는 가장 낮은 이유로 나타났고, 의복 유형별로 폐기원인이 다르다고 하였다.

결국 의복의 물리적 또는 외관적 수명이 다 되었다고 인지되었을 때 착용하지 않고 폐기하게 되는데 발생된 폐기물을 그냥 버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이는 곧 환경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요즘은 합성섬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의복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되어 가정마다 폐품화된 의복의 수량이 날로 증가되어 보관 및 처리상 곤란을 흔히 겪게 된다.

입지 않는 의복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입지 않는 의복을 친척이나 알고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sup>6)7)10)13)16)</sup>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며 고쳐서 재이용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sup>10)</sup>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고품에 대한 인식이 깨어 있지 못하고, 특히 의복은 타인의 이목을 중시해서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입던 의복을 남에게 주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의복

은 관습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복폐기를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와 환경

선행연구의 대부분에서 유행이 지났다거나, 싫증이 났다는 이유로, 또는 사망이나 출가에 따라 버려지는 의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즘은 생산되는 의복은 섬유의 조성이 천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섬유가 많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의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섬유를 매립하는 경우 플라스틱과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켜 토양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매립지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합성섬유로 된 의복을 매립했을 때 나일론천은 30-40년, 가죽구두는 25-40년, 1회용 기저귀는 100년이상 걸려야 분해되고,<sup>12)</sup> 소각로에서 소각시켰을 경우 에너지는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양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으로 절약되는 에너지에 비해 아주 적고 염산과 같은 유해가스의 발생으로 대기도 오염시키게 된다.<sup>8)</sup>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은 재활용에 대한 효과가 비교적 쉬운 것으로 유행이 지났다고 버려진 옷, 세탁만 잘 하면 새옷이나 다름없는 의류, 사망이나 출가에 따라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의류 및 신발류, 자녀의 졸업으로 인해 폐기되는 교복 등은 재활용품 교환 장소나 재활용품 상설시장에 내놓으면 쉽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 효용가치가 연장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물품을 재활용하기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재활용 품목으로 종이류, 병, 캔, 고철(금속), 의복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정하고 자원 재활용의 기초가 되는 분리 배출 및 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나,<sup>18)</sup> 분리 수거함은 대체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의 수거함만 설치되어 있고, 의복류를 수집하기위한 함은 일부 아파트부녀회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어 헌옷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분리 수거된 의복류를 처리하

는 체계는 각 민간단체에서 수집하여 수집상에게 팔든지, 쓰레기 처리업자가 수거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보내면 이중에서 착용 가능한 의복류는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나머지 폐기되는 의복은 폐품재생공사에 보내져서 걸레, 완구내 충전, 보온재, 재생원료등에 쓰이고 있으나 섬유 소비량에 비해 재활용율은 낮은 편이다.<sup>5)</sup> 따라서 리사이클과 감량처리를 통해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섬유제품의 리사이클에 있어서는 고치거나, 재염색하거나, 원료로의 환원 등이 행해지지만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한다면 가능한한 섬유공정 이전에서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헌옷을 분리수거하여 적절히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중고의복류시장은 1990년 이후 의류자원의 재활용 방안으로 현재 시인 알뜰장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별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구청에서 월 1-2회 개최하고 있거나 재활용 상설 전시관을 열어 각 가정에서 사장되는 의복을 교환, 판매하고 있다.<sup>11)</sup> 중고의복류교환의 실시주체는 행정기관, 부녀회, 종교단체, 학교 등으로 각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는 편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일정제품이 같은 종류의 타제품보다 환경친화적, 자원절약적으로 생산, 사용, 폐기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충족과 소비자의 "그린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발시키기 위하여 마크를 부여,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환경마크제도(Eco-Labeling)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sup>3)</sup> 우리 나라는 92년 6월부터 시행하여 1994년 29개 품목 142개 상품에 부여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70개 품목 2000개 상품으로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sup>17)</sup>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소비자가 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환경상품의 소비는 미미한 형편이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의복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중에 가장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섬유제품환경마크제 운영이다. 섬유제품환

경마크제도는 1992년 독일 원사직물연합회(Gesamttextile)에 의하여 소비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섬유 개발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여 MST(Marke Schadstoffgeprüfte Textilien: 유해물질 검사필 섬유마크)를 채택하고 있으며,<sup>3)</sup> 오스트리아 섬유연구기관을 중심으로 Oeko-Tex100(생태적 섬유마크)제도가 1991년부터 도입되었는데, 1994년 현재 약 720개의 제품에 Oeko-Tex100마크가 부여되었다.<sup>2)</sup> 우리 나라 환경마크협회는 100% 면기저귀, 면타올 그리고 폐섬유를 재생한 포장재에 섬유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섬유제품에 환경마크를 획득한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국제적 동향을 보면 미리 환경보호 시설에 투자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을 개발하여야만 선진국 섬유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업계에서는 이러한 면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절차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기준에 개발된 설문지가 없으므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가정에서 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1996년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4월 10일에서 19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700부를 배부하여 646부가 회수되었으나, 기재미비등 연구자료로 적당하지 못한 30부를 제외한 616부를 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의복의 구입, 사장 및 처리, 환경오염 관심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거형태의 4가지 특성을 측정하였다.

구성문항의 내용 및 문항수는 각 가정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구입방법(3문항),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 및 처리(6문항), 의류재활용(3문항),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4문항), 환경오염을 의식한 의생활(9문항)등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에 의해 처리 분석되었으며, 전체자료가 나타난 측정변인의 응답을 빈도·백분율로 환산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CHI SQUARE) TEST로 유의도를 산출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원인과 그동안의 처리방법, 앞으로의 처리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총 3문항입)은 변량분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F-test, t-test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분포는 20대가 20.3%, 30대가 28.2%, 40대가 29.5%, 50대가 21.5%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 30%, 전문대졸이상 16.2%, 국졸이하 8.3%였다.

직업유무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7.9%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전업주부가 52.1%였으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48.9%) > 아파트(32.3%) > 연립주택(11.0%) > 기타(7.8%) 순이었다.

### 2. 의복구입 및 착용

의복구입 방법과 착용기간은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량과 의복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구입 및 착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복구입시의 계획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라 계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사람은 연령에서는 2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 전업주부쪽이 많았다. 그리고 주거형태별로 보면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는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입시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연령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학력은 낮을수록, 주거형태에서는 연립주택에 사는 주부가 높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우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자의 41.2%가 실용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가격이 적당한 것 등을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는 0.3%로 극히 낮았다.

구입한 의복을 즐겨 착용하는 기간은 <표 3>과 같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뿐 교육수준이나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착용기간을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착용기간이 짧고,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착용기간이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복을 더 잘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2~3년정도가 조사대상자의 40.8%로 제일 많고 3~5년이 35.5%였으며 6년이상 착용하는 경우는 11.4%로 적게 나타났으며, 2년미만 착용하는 주부는 12.3%로 조사되었다.

### 3.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 및 처리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그동안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폐기한 방법, 앞으로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폐기할 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문항은 제시된 예시 중에서 자신의 의견과 가장 적합한 내용을 골라 1, 2, 3으로 기록하게 한 다음 각각 3, 2, 1점을 주어 변량분석을하였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인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체형변화',

〈표 1〉 의복구입시의 계획성

(N=616, 명(%))

| 구 분  | 구매방법   | 계획적인 구매    |            |               | x <sup>2</sup> |
|------|--------|------------|------------|---------------|----------------|
|      |        | 계획적인 구매    | 필요할 때마다 구매 | 쇼핑중 마음에 들면 구매 |                |
| 연 령  | 20대    | 36 (28.8)  | 53 (42.4)  | 36 (28.8)     | 24.4**         |
|      | 30대    | 71 (40.8)  | 72 (41.4)  | 31 (17.8)     |                |
|      | 40대    | 76 (41.8)  | 77 (42.3)  | 29 (15.9)     |                |
|      | 50대    | 55 (40.7)  | 69 (51.1)  | 11 ( 8.1)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25 (49.0)  | 23 (45.1)  | 3 ( 5.9)      | 31.6***        |
|      | 중졸     | 84 (45.4)  | 80 (43.2)  | 21 (11.3)     |                |
|      | 고졸     | 107 (38.2) | 122 (43.6) | 51 (18.2)     |                |
|      | 전문대졸이상 | 22 (22.0)  | 46 (46.0)  | 32 (32.0)     |                |
| 직 업  | 있다     | 89 (30.2)  | 148 (50.2) | 58 (19.6)     | 17.2***        |
|      | 없다     | 149 (46.4) | 123 (38.3) | 49 (15.2)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120 (39.9) | 144 (47.8) | 37 (12.3)     | 18.8*          |
|      | 아파트    | 70 (35.2)  | 80 (40.2)  | 49 (24.6)     |                |
|      | 연립주택   | 33 (48.5)  | 23 (33.8)  | 12 (17.6)     |                |
|      | 기타     | 15 (31.3)  | 24 (50.0)  | 9 (18.8)      |                |
| 계    |        | 238 (38.6) | 271 (44.0) | 107 (17.4)    |                |

\* p &lt; .05 \*\* p &lt; .01 \*\*\* p &lt; .001

〈표 2〉 의복 구입시 구매 기준

(N=616, 명(%))

| 구 분  | 구매기준   | 구매 기준      |            |           |          |            | x <sup>2</sup> |
|------|--------|------------|------------|-----------|----------|------------|----------------|
|      |        | 가 격        | 디자인        | 유 행       | 환경오염     | 실용성        |                |
| 연 령  | 20대    | 21 (16.8)  | 56 (44.8)  | 1 ( 0.8)  | ·        | 47 (37.6)  | 27.1**         |
|      | 30대    | 31 (17.8)  | 58 (33.3)  | 1 ( 0.6)  | ·        | 84 (48.3)  |                |
|      | 40대    | 37 (20.3)  | 56 (30.8)  | 9 ( 4.9)  | 2 ( 1.1) | 78 (42.9)  |                |
|      | 50대    | 22 (16.3)  | 64 (47.4)  | 4 ( 3.0)  | ·        | 45 (33.3)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13 (25.5)  | 12 (23.5)  | 1 ( 2.0)  | ·        | 25 (49.0)  | 40.4***        |
|      | 중졸     | 37 (20.0)  | 46 (24.9)  | 7 ( 3.8)  | 2 ( 1.1) | 93 (50.3)  |                |
|      | 고졸     | 48 (17.1)  | 121 (43.2) | 4 ( 1.4)  | ·        | 107 (38.2) |                |
|      | 전문대졸이상 | 13 (13.0)  | 55 (55.0)  | 3 ( 3.0)  | ·        | 29 (29.0)  |                |
| 직 업  | 있다     | 54 (18.3)  | 121 (41.0) | 9 ( 3.1)  | 1 ( 0.3) | 110 (37.3) | 4.4            |
|      | 없다     | 57 (17.8)  | 113 (35.2) | 6 ( 1.9)  | 1 ( 0.3) | 144 (44.9)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57 (18.9)  | 96 (31.9)  | 5 ( 1.7)  | 1 ( 0.3) | 142 (47.2) | 27.7**         |
|      | 아파트    | 37 (18.6)  | 97 (48.7)  | 6 ( 3.0)  | 1 ( 0.5) | 58 (29.1)  |                |
|      | 연립주택   | 8 (11.8)   | 23 (33.8)  | 1 ( 1.5)  | ·        | 36 (52.9)  |                |
|      | 기타     | 9 (18.8)   | 18 (37.5)  | 3 ( 6.3)  | ·        | 18 (37.5)  |                |
| 계    |        | 111 (18.0) | 234 (38.0) | 15 ( 2.4) | 2 ( 0.3) | 254 (41.2) |                |

\*\* p &lt; .01 \*\*\* p &lt; .001

〈표 3〉 의복(겉옷)을 즐겨 착용하는 기간

(N=616, 명(%))

| 구 분  |        | 착용기간      | 2년미만       | 2~3년       | 3~5년      | 6년이상  | χ <sup>2</sup> |
|------|--------|-----------|------------|------------|-----------|-------|----------------|
|      |        |           |            |            |           |       |                |
| 연 령  | 20대    | 21 (16.8) | 61 (48.8)  | 37 (29.6)  | 6 ( 4.8)  | 28.0* |                |
|      | 30대    | 22 (12.6) | 77 (44.3)  | 51 (29.3)  | 24 (13.8) |       |                |
|      | 40대    | 22 (12.1) | 57 (31.2)  | 79 (43.4)  | 24 (13.2) |       |                |
|      | 50대    | 11 ( 8.1) | 56 (41.5)  | 52 (38.5)  | 16 (11.9) |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3 ( 5.9)  | 19 (37.3)  | 21 (41.2)  | 8 (15.7)  | 19.4  |                |
|      | 중졸     | 24 (13.0) | 74 (40.0)  | 59 (31.9)  | 28 (15.1) |       |                |
|      | 고졸     | 32 (11.4) | 120 (42.9) | 103 (36.8) | 25 ( 8.9) |       |                |
|      | 전문대졸이상 | 17 (17.0) | 38 (38.0)  | 36 (36.0)  | 9 ( 9.0)  |       |                |
| 직 업  | 있다     | 46 (15.6) | 119 (40.3) | 97 (32.9)  | 33 (11.2) | 8.8   |                |
|      | 없다     | 30 ( 9.3) | 131 (41.1) | 122 (38.0) | 37 (11.5) |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30 (10.0) | 126 (41.2) | 109 (36.2) | 36 (12.0) | 17.2  |                |
|      | 아파트    | 29 (14.6) | 80 (40.2)  | 73 (36.7)  | 17 ( 8.5) |       |                |
|      | 연립주택   | 6 ( 8.8)  | 31 (45.6)  | 20 (29.4)  | 11 (16.2) |       |                |
|      | 기타     | 11 (22.9) | 14 (29.2)  | 17 (35.4)  | 6 (12.5)  |       |                |
| 계    |        | 76 (12.3) | 251 (40.8) | 219 (35.6) | 70 (11.4) |       |                |

\* p < 0.05

‘유행에 뒤떨어져서’, ‘오래 입어 낡아서’,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형변화로 인해서 의복을 입지 않는 응답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이 지난 의복이기 때문에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 오래 입어 낡아져서 입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입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학력이 낮을수록 ‘체형변화’와 ‘낡아서’와 같은 원인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행’, ‘마음에 들지 않아’와 같은 미적 원인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향이 고정되어 싫증을 덜내고 의복을 신중하게 구매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고 마음에 드

는 옷을 선택하여 ‘싫증’, ‘취향변화’로 인한 의복폐기가 적어진다는 유연실<sup>10)</sup>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도 높고,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하므로 의복의 미적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체형 변화 등으로 치수가 맞지 않게 되어 <오래 입고 낡아서> 디자인,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에 뒤떨어져서> 세탁이나 착용 중 모양이 변하거나 지퍼 등이 고장나서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정혜,<sup>10)</sup> 신은주<sup>11)</sup>가 의복의 사장이유로 ‘유행에 뒤떨어져서’라고 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났다.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의복의 사장원인이 ‘치수가 맞지 않아’가 많고,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sup>12)</sup>와 견주어 볼 때 착용하지 않는 원인이 의복의 심리적인 면보다는 물리적 원인에 의해 사장되는 것이 많아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 구분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 체형변화 |      |      | 유행   |      |       | 납아서  |      |      | 마음에 들지않아 |      |      | 모양이 변하거나 고장 |      |      |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서 |      |      | 기타   |      |   |      |
|------|----------------|------|------|------|------|------|-------|------|------|------|----------|------|------|-------------|------|------|--------------|------|------|------|------|---|------|
|      |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
| 연령   | 20대            | 1.42 | 1.30 |      | 1.12 | 1.18 |       | 1.10 | 1.14 |      | 1.36     | 1.16 |      | 0.88        | 0.94 |      | 0.08         | 0.39 |      | .    | .    |   |      |
|      | 30대            | 1.90 | 1.22 | 9.62 | 0.97 | 1.14 | 2.59  | 1.17 | 1.11 | 3.74 | 1.04     | 1.09 | 7.1  | 0.86        | 0.96 | 1.86 | 0.01         | 0.10 | 3.43 | 0.02 | 0.18 |   | 1.40 |
|      | 40대            | 2.13 | 1.05 | ***  | 0.95 | 1.15 | *     | 1.38 | 1.14 | **   | 0.79     | 0.99 | ***  | 0.68        | 0.83 |      | 0.00         | 0.07 | **   | 0.03 | 0.26 |   |      |
|      | 50대            | 2.00 | 1.10 |      | 0.73 | 1.03 |       | 1.51 | 1.17 |      | 1.00     | 1.07 |      | 0.71        | 0.90 |      | 0.03         | 0.22 |      | 0.00 | 0.08 |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2.17 | 1.09 |      | 0.49 | 0.90 |       | 1.66 | 1.10 |      | 0.72     | 1.00 |      | 0.86        | 0.84 |      | 0.01         | 0.14 |      | 0.01 | 0.14 |   |      |
|      | 중졸             | 2.14 | 1.05 | 7.09 | 0.71 | 1.04 | 11.48 | 1.40 | 1.16 | 3.59 | 0.87     | 1.00 | 3.98 | 0.83        | 0.92 | 0.92 | 0.01         | 0.10 |      | 0.02 | 0.23 |   | 0.20 |
|      | 고졸             | 1.80 | 1.23 | **   | 1.01 | 1.16 |       | 1.22 | 1.13 | **   | 1.12     | 1.12 | **   | 0.77        | 0.90 |      | 0.02         | 0.23 | 1.63 | 0.01 | 0.14 |   |      |
|      | 대졸이상           | 1.56 | 1.24 |      | 1.40 | 1.18 |       | 1.11 | 1.16 |      | 1.17     | 1.14 |      | 0.66        | 0.92 |      | 0.07         | 0.32 |      | 0.03 | 0.17 |   |      |
| 직업   | 있다             | 1.85 | 1.22 |      | 0.94 | 1.11 |       | 1.33 | 1.14 |      | 0.98     | 1.08 |      | 0.80        | 0.94 |      | 0.04         | 0.27 | 2.97 | 0.01 | 0.14 |   |      |
|      | 없다             | 1.93 | 1.16 | 1.11 | 0.94 | 1.15 | 1.08  | 1.25 | 1.15 | 1.01 | 1.05     | 1.10 | 1.03 | 0.76        | 0.88 | 1.14 | 0.01         | 0.15 | *    | 0.02 | 0.20 |   | 2.13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1.99 | 1.16 |      | 0.73 | 1.06 |       | 1.41 | 1.13 |      | 0.94     | 1.06 |      | 0.86        | 0.94 |      | 0.02         | 0.18 |      | 0.01 | 0.09 |   |      |
|      | 아파트            | 1.87 | 1.21 |      | 1.22 | 1.20 | 7.75  | 1.18 | 1.13 | 3.17 | 1.05     | 1.07 |      | 0.60        | 0.81 |      | 0.02         | 0.17 |      | 0.04 | 0.28 |   |      |
|      | 연립주택           | 1.76 | 1.18 | 2.02 | 1.07 | 1.12 | ***   | 1.02 | 1.18 | *    | 1.13     | 1.19 | 1.33 | 0.91        | 0.94 | 3.73 | 0.04         | 0.36 | 0.60 | .    | .    |   | 1.44 |
|      | 기타             | 1.58 | 1.23 |      | 0.91 | 1.12 |       | 1.39 | 1.19 |      | 1.22     | 1.18 |      | 0.79        | 0.96 |      | 0.06         | 0.32 |      | 0.02 | 0.14 |   |      |

\* p &lt; .05 \*\* p &lt; .01 \*\*\* p &lt; .001

그리고 지금까지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한 방법으로는 〈표 5〉와 같이 '물물교환장에서 교환했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쳐서 재활용했다'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가장 낮았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었다' 항목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어 중졸, 고졸은 높은 반면 국졸이하와 대졸이상은 적게 조사되었으며, '복지시설에 기탁했다'는 교육수준과 직업유무에서 모두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헌옷 수거함에 넣어 처리했다'는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모두 유의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가 높았다. '대체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항에서는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낮으며, 국졸이하에서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었다 > 대부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 고쳐서 재활용했다 > 헌옷 수거함에 넣었다 순이었다.

앞으로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조사내용은 〈표 6〉과 같이 '수집상에게 얼마라도 경제적 보상을 받고 파는 것'과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상에게 얼마라도 경제적 보상을 받고 파는 것'은 연령에서만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나이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교육수준, 주거형태에서만 차이가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가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는 것 > 고쳐서 재활용하는 것 > 복지시설 기탁 > 물물교환장에서 교환하고 싶다 > 수집상에게 싼 값으로라도 팔고 싶다 순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동안 처리해



〈표 5〉 그동안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한 방법

| 구분   | 착용하지 않는 의복처리 | 고쳐서 재활용 |      |      | 가족, 친지에게 줌 |      |      | 복지시설 기탁 |      |      | 헌옷 수거함에 넣음 |      |       | 물물교환장에서 교환 |      |      | 그대로 보관 |      |      | 쓰레기와 함께 버림 |      |      |      |      |      |      |      |      |
|------|--------------|---------|------|------|------------|------|------|---------|------|------|------------|------|-------|------------|------|------|--------|------|------|------------|------|------|------|------|------|------|------|------|
|      |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      |      |      |      |      |
| 연령   | 20대          | 0.59    | 1.00 |      | 1.98       | 1.19 |      | 0.30    | 0.75 |      | 0.39       | 0.85 |       | 0.09       | 0.44 |      | 1.44   | 1.10 |      | 1.44       | 0.97 |      |      |      |      |      |      |      |
|      | 30대          | 0.69    | 1.06 | 1.20 | 2.23       | 1.10 | 2.33 | 0.28    | 0.68 | 1.95 | 0.50       | 0.91 | 9.47  | 0.09       | 0.36 | 0.08 | 1.17   | 1.05 | 5.83 | 1.17       | 0.97 | 4.51 |      |      |      |      |      |      |
|      | 40대          | 0.60    | 0.99 |      | 2.20       | 1.05 |      | 0.43    | 0.87 |      | 0.79       | 1.07 |       | ***        | 0.08 |      | 0.38   | 0.94 |      | 1.05       | ***  |      | 0.94 | 0.97 | *    |      |      |      |
|      | 50대          | 0.80    | 1.10 |      | 2.31       | 0.88 |      | 0.45    | 0.85 |      | 0.26       | 0.75 |       |            | 0.07 |      | 0.37   | 1.28 |      | 1.11       |      |      | 1.28 | 0.82 |      |      |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0.62    | 0.99 |      | 2.15       | 1.02 |      |         | 0.23 |      | 0.65       |      |       | 0.15       | 0.54 |      |        | 0.05 |      | 0.31       |      |      | 1.60 | 1.07 |      | 1.60 | 1.09 |      |
| 교육수준 | 중졸           | 0.78    | 1.10 | 1.73 | 2.34       | 0.93 | 3.68 | 0.31    | 0.74 | 2.92 | 0.35       | 0.79 | 6.97  | 0.08       | 0.40 | 0.12 | 1.04   | 1.05 | 3.58 | 1.04       | 0.94 | 0.58 |      |      |      |      |      |      |
|      | 고졸           | 0.66    | 1.03 |      | 2.20       | 1.08 |      | **      | 0.36 |      | 0.77       | *    |       | 0.60       | 1.00 |      | ***    | 0.08 |      | 0.38       |      |      | 1.18 | 1.07 | **   | 1.18 | 0.91 |      |
|      | 대졸이상         | 0.50    | 0.94 |      | 1.91       | 1.20 |      |         | 0.57 |      | 0.97       |      |       | 0.73       | 1.06 |      |        | 0.10 |      | 0.41       |      |      | 1.22 | 1.15 |      | 1.22 | 1.00 |      |
|      | 직업           | 있다      | 0.70 |      | 1.04       | 1.01 |      | 2.15    | 1.08 |      | 1.06       | 0.30 |       | 0.72       | 1.37 |      | 0.45   | 0.91 |      | 1.11       | 0.06 |      | 0.34 | 1.55 | 1.28 | 1.12 | 1.12 | 1.28 |
| 없다   | 0.64         | 1.04    | 2.23 | 1.05 |            |      | 0.43 | 0.85    | *    | 0.57 |            | 0.96 |       | 0.10       |      | 0.42 | *      | 1.09 | 1.05 |            |      | 1.09 | 0.94 |      |      |      |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0.78    | 1.10 | 2.70 | 2.22       | 1.01 | 2.15 | 0.32    | 0.76 | 2.30 | 0.32       | 0.77 | 16.95 | 0.07       | 0.31 | 1.94 | 1.22   | 1.08 | 1.19 | 1.22       | 0.98 | 0.23 |      |      |      |      |      |      |
|      | 아파트          | 0.51    | 0.93 |      | 2.08       | 1.14 |      |         | 0.48 |      | 0.90       |      |       | 0.88       | 1.14 |      | 0.06   | 0.31 |      | 1.09       | 1.10 |      | 1.09 | 0.93 |      |      |      |      |
|      | 연립주택         | 0.66    | 1.04 |      | *          | 2.17 |      | 1.11    |      |      | 0.25       | 0.63 |       |            | 0.35 |      | 0.76   | ***  |      | 0.14       | 0.60 |      | 1.33 | 1.10 | 1.33 | 0.93 |      |      |
|      | 기타           | 0.60    | 0.98 |      | 2.50       | 0.94 |      |         | 0.33 |      | 0.72       |      |       | 0.35       | 0.75 |      |        | 0.18 |      | 0.60       | 1.10 |      | 1.07 | 1.10 | 0.88 |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앞으로 착용하지 않는 의복처리로 바람직한 것

| 구분   | 착용하지 않는 의복처리 | 고쳐서 재활용 |      |      | 가족, 친지에게 줌 |      |      | 복지시설 기탁 |      |      | 수집상에게 줌 |      |      | 물물교환장에서 교환 |      |      | 그대로 보관 |      |      | 쓰레기와 버림 |      |      |      |      |
|------|--------------|---------|------|------|------------|------|------|---------|------|------|---------|------|------|------------|------|------|--------|------|------|---------|------|------|------|------|
|      |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M       | SD   | F    |      |      |
| 연령   | 20대          | 1.40    | 1.27 |      | 1.83       | 1.13 |      | 1.05    | 1.10 |      | 0.73    | 0.96 |      | 0.79       | 1.00 |      | 0.07   | 0.34 |      | 0.05    | 0.38 |      |      |      |
|      | 30대          | 1.36    | 1.27 | 2.11 | 2.08       | 1.07 | 2.43 | 1.13    | 1.01 | 0.81 | 0.49    | 0.79 | 6.75 | 0.68       | 0.99 | 1.35 | 0.12   | 0.45 | 1.09 | 0.06    | 0.26 | 0.04 |      |      |
|      | 40대          | 1.30    | 1.21 |      | 2.16       | 1.00 |      | 1.21    | 1.08 |      | 0.37    | 0.76 |      | ***        | 0.74 |      | 1.00   | 0.15 |      | 0.46    | *    |      | 0.06 | 0.28 |
|      | 50대          | 1.64    | 1.16 |      | 1.91       | 1.09 |      | 1.23    | 1.10 |      | 0.32    | 0.72 |      |            | 0.56 |      | 0.91   | 0.16 |      | 0.52    |      |      | 0.05 | 0.28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1.35    | 1.29 |      | 2.05       | 1.10 |      |         | 0.96 |      | 0.95    |      |      | 0.54       | 0.90 |      |        | 0.62 |      | 0.95    |      |      | 0.25 | 0.65 |
| 교육수준 | 중졸           | 1.47    | 1.23 | 0.34 | 2.03       | 1.06 | 0.10 | 1.08    | 1.10 | 1.40 | 0.47    | 0.80 | 0.18 | 0.68       | 0.96 | 0.47 | 0.14   | 0.46 | 2.12 | 0.04    | 0.20 | 1.32 |      |      |
|      | 고졸           | 1.42    | 1.23 |      | 1.98       | 1.09 |      | 1.22    | 1.06 |      | 0.45    | 0.81 |      |            | 0.68 |      | 0.98   | 0.12 |      | 0.42    |      |      | 0.04 | 0.25 |
|      | 대졸이상         | 1.33    | 1.22 |      | 1.99       | 1.05 |      | 1.24    | 1.07 |      | 0.47    | 0.83 |      |            | 0.80 |      | 1.03   | 0.06 |      | 0.37    |      |      | 0.09 | 0.45 |
|      | 직업           | 있다      | 1.44 |      | 1.24       | 1.03 |      | 1.99    | 1.08 |      | 1.02    | 1.09 |      | 1.05       | 1.06 |      | 0.49   | 0.83 |      | 1.06    | 0.73 |      | 1.00 | 1.06 |
| 없다   | 1.39         | 1.23    | 2.01 | 1.07 | 1.22       |      | 1.08 | 0.44    | 0.80 |      |         | 0.66 | 0.97 | 0.15       |      | 0.49 |        | 0.05 | 0.23 |         |      |      |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1.48    | 1.25 | 1.18 | 1.93       | 1.04 | 1.18 | 1.16    | 1.08 | 0.02 | 0.42    | 0.81 | 1.94 | 0.67       | 0.99 | 0.98 | 0.18   | 0.55 | 3.83 | 0.07    | 0.34 | 0.57 |      |      |
|      | 아파트          | 1.28    | 1.22 |      | 2.07       | 1.06 |      | 1.17    | 1.06 |      | 0.50    | 0.80 |      |            | 0.78 |      | 1.04   | 0.09 |      | 0.34    | **   |      | 0.04 | 0.25 |
|      | 연립주택         | 1.50    | 1.22 |      | 2.01       | 1.17 |      | 1.13    | 1.09 |      | 0.66    | 0.90 |      |            | 0.60 |      | 0.79   | 0.02 |      | 0.17    |      |      | 0.02 | 0.17 |
|      | 기타           | 1.45    | 1.18 |      | 2.18       | 1.06 |      | 1.16    | 1.03 |      | 0.37    | 0.70 |      |            | 0.60 |      | 0.93   | 0.12 |      | 0.44    |      |      | 0.06 | 0.32 |

\* p < .05 \*\* p < .01 \*\*\* p < .001

왔던 방법과는 차이가 났다. 즉 앞으로는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재활용하거나 물물교환,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알뜰시장이나 중고품교환시장을 활성화시켜 자기가 입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 의복을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고 팔고, 필요한 사람은 적은 돈을 지불하고 사면 경제적 도움도 되고, 멋스럽고 아울러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긍지를 심어주는 데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주부들이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에 이용한 단체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했던 것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는 복수응답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친척이나 이웃)에게 주어 처리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부녀회, 종교단체, 고물상을 통하여 처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럼 개인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해도 좋으나,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는 수거체계가 확립되어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겠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에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단지내에 의복수거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입을만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주고 싶어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럽고 쌓아두자니 공간이 좁아져 불편하므로 처리는 불가피해지는데, 이때 겪는 어려움으로 물려줄 사람이 없는 점(37.7%) > 기탁하거나 물물교환시장을 이용할 줄 모르는 점(21.8%) > 옷을 분리 수거해 가지 않는 점(21.8%) > 고치는 방법을 모르는 점(15.6%) 순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의복 수거체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4. 의복재활용 현황

의복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어본 경험과 앞으로 누가 나에게 헌옷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뜰시장이나 중고품교환시장을 통해 헌옷을 구입한 현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이 준 옷을 입어본 경험은 68.3%가 남이 입던 옷을 입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신은주의 연구에서 물려받아 입은 적이 있는 경우가 38.0%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헌의복의 교환이나 증여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남이 입던 옷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교육수준(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입는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입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77.8%가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입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도움이 되므로 입겠다'고 한 주부가 59.1%이고 자원절약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입겠다고 18.7%였으며, 22.2%는 입지 않겠다고 하였다.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비율은 아주 낮아서 아직 주부들의 환경, 자원절약, 재활용 등에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재활용행동과 관련하여 헌옷을 구입한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헌옷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헌옷 구입 경험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고의류시장이 조기단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헌옷을 판매하는 중고의류상회가 거의 없으며, 물물교환이나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경우가 적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의복재활용행동과 관련된 문항인 남이 준 옷의 착용경험, 남이 준 경우의 착용여부, 알뜰시장 이용경험 등에서 재활용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식은 고취되어 있으나 행동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의식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환경오염 및 재활용 인식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인지도는 높게 조사되었으며, 재활용되는 품목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비율은 높으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낮은

〈표 7〉 의복 재활용

(N=616, 명(%))

| 내 용                    |                             | 결 과 | 빈 도        |
|------------------------|-----------------------------|-----|------------|
| 남이 입던 옷을<br>받아 입어 본 경험 | 있다                          |     | 421 (68.3) |
|                        | 없다                          |     | 195 (31.7) |
| 남이 입던 옷을<br>나에게 준다면    | 경제적 도움이 되므로 입겠다.            |     | 364 (59.1) |
|                        |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입겠다.         |     | 115 (18.7) |
|                        | 남이 입던 옷은 입지 않겠다.            |     | 47 ( 7.6)  |
|                        | 입지는 않더라도 받아두었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     | 90 (14.6)  |
| 현옷 구입 경험               | 자주 있다.                      |     | 29 ( 4.7)  |
|                        | 가끔 있다.                      |     | 205 (33.3) |
|                        | 없다                          |     | 382 (62.0) |
| 계                      |                             |     | 616 (100)  |

〈표 8〉 의복폐기와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N=616, 명(%))

| 내 용                            |               | 결 과 | 빈 도        |
|--------------------------------|---------------|-----|------------|
| 의복의 폐기 및 소각                    | 환경을 오염시킨다     |     | 535 (86.9) |
|                                |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     | 39 ( 6.3)  |
|                                | 잘 모르겠다.       |     | 42 ( 6.9)  |
| 현옷 분리배출방법                      | 잘 알고 있다.      |     | 74 (12.0)  |
|                                | 조금 알고 있다.     |     | 354 (57.5) |
|                                | 모른다.          |     | 188 (30.6) |
| 의복의 섬유별 분류                     | 잘 분류할 수 있다.   |     | 108 (17.5) |
|                                | 약간 분류할 수 있다.  |     | 395 (64.1) |
|                                | 잘 분류하지 못한다.   |     | 105 (17.1) |
|                                | 전혀 분류하지 못한다.  |     | 8 ( 1.3)   |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의복<br>처리에 관심이 있나? | 관심이 많다.       |     | 36 (13.3)  |
|                                | 관심이 있다.       |     | 290 (47.1) |
|                                | 별로 관심이 없다.    |     | 268 (43.5) |
|                                |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     | 23 ( 3.7)  |
| 계                              |               |     | 616 (100)  |

편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쉽게 재활용 가능한 물질임을 알려주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한 재활용마크와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재활용제품에 부착하는 환경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의복폐기와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옷을 그냥 버리거나 태웠을 때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86.9%가 오염시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2.8%가 의복처리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하여 의복폐기와 환경

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옷의 분리배출방법(섬유별 분류, 단추나 부속품제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2.0%에 불과하였고, 의복의 재료를 섬유별로 잘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17.5%이고, 약간 할 수 있다가 64.1%, 못한다가 18.4%로 나타나서 실제 주부들이 분리수거시 의복을 세분하여 섬유별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깨끗이 세탁한 헌 옷을 특정 색의 비닐 봉투에 넣어 정해진 날짜에 내놓기만 하면 정해진 단체에서 수거한 후 선별한다든지, 마을마다 헌 옷 수거함을 설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분리 배출은 가정에서 실시하고 수거 및 활용과 폐기는 전문 기관에서 책임지고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5. 의복폐기와 환경과의 관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헌옷처리시 관심이 있다고 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0.4%이고 나머지 39.6%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헌옷에 의한 오염보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리수거된 의복의 이용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합성섬유와 천연섬유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74.9%로 높게 나타났고, 분리 수거한 의복이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이해도는 보통 수

준이었다. 분리수거된 헌옷중에서 일부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55.2%였고, 입기 어려운 의복인 경우에는 공업적으로 재활용하여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보온재라든지 걸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51.8%, 모르는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분리수거된 의복의 처리 체계를 주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쓰레기와 함께 마구 버려지는 사태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마크가 도입되고 이어서 섬유류환경마크제도가 실시되는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마크 상품을 구입하겠다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0>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마크를 부착한 의복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앞으로의 소비생활을 고려할 때 젊은 층을 위한 환경교육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53.9%가 환경상품 구매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지향적 제품에 대해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이에 관련된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 구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의복 중 섬유류환경마크가 부착된 의복이 적은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섬유류환경마크에 대한 홍보와 적절한 가격설정, 품질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표 9> 분리수거된 의복의 이용에 대한 인지도

(N=616, 명(%))

| 내 용                          | 결 과    | 빈 도        |
|------------------------------|--------|------------|
| 합성섬유와 천연섬유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 | 알고 있다. | 470 (76.3) |
|                              | 모른다    | 146 (23.7) |
| 헌옷의 수출                       | 알고 있다. | 283 (45.9) |
|                              | 모른다    | 333 (54.1) |
| 헌옷의 공업적 재활용                  | 알고 있다. | 319 (51.8) |
|                              | 모른다    | 297 (48.2) |
| 계                            |        | 616 (100)  |

〈표 10〉 환경마크 의복구입

(N=616, 명(%))

| 구 분  | 구매방법   | 구입하겠다.     | 잘 모르겠다.    | 구입하지 않겠다. | x <sup>2</sup> |
|------|--------|------------|------------|-----------|----------------|
|      |        |            |            |           |                |
| 연 령  | 20대    | 46 (36.8)  | 74 (59.2)  | 5 (14.7)  | 5.7 *          |
|      | 30대    | 71 (40.8)  | 89 (51.1)  | 14 ( 8.0) |                |
|      | 40대    | 75 (41.2)  | 96 (52.7)  | 11 ( 6.0) |                |
|      | 50대    | 58 (43.0)  | 73 (54.1)  | 4 ( 3.0)  |                |
| 교육수준 | 국졸이하   | 16 (31.4)  | 33 (64.7)  | 2 ( 3.9)  | 3.8 *          |
|      | 중졸     | 74 (40.0)  | 98 (53.0)  | 13 ( 7.0) |                |
|      | 고졸     | 118 (42.1) | 147 (52.5) | 15 ( 5.4) |                |
|      | 전문대졸이상 | 42 (42.0)  | 54 (54.0)  | 4 ( 4.0)  |                |
| 직 업  | 있다     | 110 (37.3) | 168 (56.9) | 17 ( 5.8) | 2.3            |
|      | 없다     | 140 (43.6) | 164 (51.1) | 17 ( 5.3)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121 (40.2) | 159 (52.8) | 21 ( 7.0) | 4.4            |
|      | 아파트    | 82 (41.2)  | 107 (53.8) | 10 ( 5.0) |                |
|      | 연립주택   | 30 (44.1)  | 36 (52.9)  | 2 ( 2.9)  |                |
|      | 기타     | 17 (35.4)  | 30 (62.5)  | 1 ( 2.1)  |                |
| 계    |        | 250 (40.6) | 332 (53.9) | 34 ( 5.5) |                |

\* p < .05

### V. 결론 및 제언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면서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구입시 계획성과 관련되는 문항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복구입시 중요시하는 항목에서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입한 의류를 즐겨 착용하는 기간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체형 변화로 치수가 맞지 않게 되어서 > 오래 입고 낡아서 > 디자인,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유행에 뒤떨어져서 > 세탁이나 착용 중 모양이 변하 거나 지퍼 등이 고장 나서 > 충동구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한 방법과 앞으로 처리할 경우 바람직한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났다.

3.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 이용한 방법은 개인(친척이나 이웃)에게 주어 처리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부녀회, 종교단체, 고물상 등의 순이었으며,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 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물려줄 사람이 없는 점이 가장 많았고, 기탁하거나 물물교환 시장을 이용할 줄 모르는 점 등이었다.

4. 의류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남이 입던 옷을 받아 입어본 경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앞으로 남이 나에게 헌옷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입겠다'가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착용이유로 자원절약이나 재활용같은 환경보전을 고려한 경우는 낮았다.

헌옷 구입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38.0%가 구입한 경험이 있고, 62%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정도와 의복폐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존을 위한 의생활 관리지식(재활용 품목, 헌옷의

분리 배출방법,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의복처리 관심도, 섬유 분별력, 의복재활용)은 낮은 편으로 의식과 행동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마크제품이 값이 약간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경우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소비생활을 고려할 때 젊은 층을 위한 환경 교육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가능한 의류자원과 마구잡이로 폐기되는 의류를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중요한 문제로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1.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근원적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의복을 구입할 때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수선하여 다시 입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2. 각 가정에서 착용하지 않는 의복 처리시 심리적 부담을 적게 느끼며 배출하고 효율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겠다.

3. 수거된 의류가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운동의 적극적 추진과 물물교환시장이나 알뜰 바자회를 활성화시켜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4. 남이 입던 옷은 꺼림직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TV나 신문 등 주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구체적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지도해야겠다.

5.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섬유개발에 힘써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사용한 조사도구가 타당성이 인정된 측정도구가 아니고,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합리적 처리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겠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연·이순원, 피복관리학, 교문사, 1984, pp. 24-364.
- 2) 김용덕, "소비자의 환경의식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5, pp.19-43.
- 3) 김태구, "섬유환경마크제도", 의류산업 14권, 1995 7월, p.27.
- 4) 김태훈, 섬유제품소비과학, 형설출판사, 1982, p. 25.
- 5) 대전직할시, "대전직할시 일반폐기물의 질적특성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1992. 12월, pp.153-161.
- 6) 신상옥, "도시주부의 의생활 관리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3호, 1976, p.87.
- 7) 신은주,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p.2-40.
- 8) 안영부, 섬유학, 학문사, 1994, p.381.
- 9) 유연실,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학회지 20권 1호, 1996, pp.147-154.
- 10) 윤정혜, "가정 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1985, pp.253-256.
- 11) 이춘희, "소비자의 환경분제와 관련된 의복관리 행동과 의류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2-51.
- 12) 鄭 勇·玉致相, 인간과 환경, 지구문화사, 1993, p.226.
- 13) 지동선, "우리 나라 가정주부의 피복 보관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보건전문대 논문집 8집, 1986-1987, p.446.
- 14) 한국여성개발원, 시장개방과 여성소비자, 1993, p.144.
- 15)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자원화 정보, 1993 12월, p.63.
- 16) 한명숙, "주부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고찰", 상명여자 사범대학논문집 8집, 1980, p.14.
- 17) 환경부, 환경비전 21, 1996년 1월호, p.132.
- 18) \_\_\_\_\_,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 품목, 환경보전, 1995년 3호.